

지역 소식통

완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3일 군은 김홍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총 8명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수돗물에 대한 자료와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수질감시와 운영체계,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가뭄으로 인한 대책, 물 절약의 필요성, 올해 업무계획 등을 주제로 완주군 수돗물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펼치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금산면, 오디 농가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완)에서는 지난 22일 오디 수확기를 맞아 농가 일손돕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디 수확이 한창인 백운마을 안승삼씨의 오디밭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모악산 기슭에 위치한 백운마을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된 산간마을로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많이 부족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오디 생산농가 안승삼씨는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금산면 관내 오디 재배농가는 100여농가로서 재배면적은 46ha에 이르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300톤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태극기 거리 일제정비 실시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주택)는 지난 22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향교에서 구 주민센터까지 조성되어 있는 365 태극기 거리를 새로이 중앙병원 앞 사거리로 옮기고 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호국보훈의 달인인 동시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제정비에 참여한 회원들은 훼손되거나 오염된 가로기 60여개를 교체하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65 태극기 거리 정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요 거리에 대한 꽃길 조성사업 등 연중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

심보균 행자부 차관, 김제 춘강마을 방문... 농가들 애로사항 청취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 용지면 춘강마을을 방문하여 가뭄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심 차관은 김제 백구 출신으로 고향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 지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가뭄현장을 방문하였다.

급년 가뭄으로 인해 평년 대비 강수량 58%, 저수량 73%인 수준으로 고구마 등 밭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위로하고 이건설 김제시장을으로부터 가뭄피해 현황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발라가고 시들어가는 논·밭작물들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건설 김제시장은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실버 자활 프

젝트 추진 공간 마련을 위해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다.

심 차관은 제1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지역과의 인연을 꾸준히 가져왔다.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부에서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 하였으며 정통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문재영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승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통역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30여명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참여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 및 축제 전문 해설 자원봉사자를 6월 26일부터 7월 21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2개 분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 안내 자원봉사자와 김제의 역사, 문화, 축제 등에 기본 소양을 가진 축제 전문 해설 자원봉사자를 30여명 모집한다.

축제와 관광 등 유사분야 전공 및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고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근무가 가능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통역이 가능하거나 김제의 역사, 문화, 축제 등에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분야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김제시 및 지평선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메일,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결과는 7월말 개별통지하고 지평선축제의 행사장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축제기간 전 7 ~ 8월경에 서면교육 및 현장탐방과 실무교육, 관광객 환대서비스 마인드 함양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성공한 밑바탕에는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참여가 있었다”며 “세계 각국 진출 등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돕는다

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아웃리치 캠페인 벌여

완주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소장 유종화)은 완주경찰서와 함께 삼레터미널 부근 및 거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을 벌였다.

아웃리치는 봉사활동 의미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 직접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을 찾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고, 이들이 학업부진,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취업 및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종화 센터장은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완주군에서 설치했으며, 전주YMCA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인문학 강연 진행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단법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인문학 강연을 준비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총 9회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연은 유명인사들의 거창한 내용이 아닌 민요, 문학, 심리, 신화 등 생활문화와 밀접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친근하고 편안한 인문학 강연이다.

‘생활문화 더하기 인문학 산책’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자발적 학습 모임으로 2017 전북도민을 위한 인문학 클래스 사업에 선정된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 있다.

강연 주제는 전주대 국문과 정미영 교수의 ‘영화로 보는 인간심리’, 문학평론가 김동수 교수의 ‘예술과 미학’, 전주시립도서관 문화전담 오남석 강사의 ‘이성과 감성문화’, ‘신화와 문화론’, 원광대 심리학박사 홍신미 박사의 ‘이미지로 보는 심리여행’, 경기대 임두레 교수의 ‘경기민요의 멋과 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시민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친근하고 편안한 인문학 강연이다.

‘생활문화 더하기 인문학 산책’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자발적 학습 모임으로 2017 전북도민을 위한 인문학 클래스 사업에 선정된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한국흥건축학교, 운주면 백석마을에 사랑방 설치



한국흥건축학교가 흙으로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마을 사랑방까지 지어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3일 완주군은 군과 유네스코 석좌프로그램인 한국흥건축학교 교직원과 졸업생 30여명이 운주면 백석마을에 마을 사랑방을 지어줬다고 밝혔다.

교육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약 26㎡(8평) 규모의 마을 사랑방을 지었다.

흙다짐, 타설 공법, 흙 미장, 이중심벽 등 흙 건축의 중요 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경험의 기회도 얻고, 사랑방이 없던 마을에 소중한 안식처를 제공했다.

흥건축학교는 앞서 구이면 호풍마을에도 사랑방을 설치해줬으며, 1개 마을을 더 선정해 사랑방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흥건축 교육은 (사)한국흥건축연구회와 완주군이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흥건축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한국흥건축학교(063-714-4666)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빙화동계곡

승마체험장

와룡자연휴양림 물별매장

장수물 검색 장수군